

# 1970년대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의 망탈리테 연구

: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이은영\*

## 차례

1. 서론
2. '중산층' 여성의 물질주의적 근대에 대한 순응과 저항
3. 중산층 '여성'의 가부장제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갈등
4. 행위주체로서의 여성과 진정한 행복에 대한 모색
5. 결론

## 〈국문초록〉

박완서의 초기소설은 주로 '물질중심주의 풍조와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박완서의 장편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서 중산층의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과 얽혀 있는 중산층 여성의 복잡한 심리상태가 잘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은 물질주의적 근대와 가부장제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이지 않고 순응과 저항 사이, 암묵적 합의와 갈등 사이에서 균열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박완서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인 중산층 여성의 '중산층'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이중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즉 박완서 소설에서 중산층 여성은 국가가 주도한 가부장적 근대화라는 상징적 질서를 따르지만, 그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교수.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분리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욕망을 되찾는 주체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서 중산층 여성은 일상적 파시즘에서 탈출하여 스스로 자립하고, 진정한 행복을 모색하는 행위주체라는 점에서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핵심어 : 중산층 여성, 망탈리테, 순응과 저항, 암묵적 합의와 갈등, 분리, 행위주체로서의 여성

## 1. 서론

박완서의 초기소설은 6·25 전쟁과 분단 문제,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 여성의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당대 비평가인 김주연이 1970년대 박완서의 소설을 ‘물질주의와 사머니즘에 대한 순응으로부터 탈출’<sup>1)</sup>이라고 평가한 이후, 이 시기 소설들은 주로 ‘물질중심주의 풍조와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sup>2)</sup> 그러나 본 연구는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 대해 기존연구에서 재생산해 온 중산층의 허위의식이나 물질주의라는 평가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과 얽혀 있는 중산층 여성의 복잡한 심리상태가 재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런데 작가 스스로, 여성문제를 다루어야겠다고 의식하고 쓴 것이 『살아있는 날의 시작』뿐이었다<sup>3)</sup>는 언급 때문인지, 박완서 소설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살아 있는 날의 시작』(『동아일보』 1979.10.2~1980.5.30), 『서 있

1) 김주연, 『순응과 탈출』, 『문학과지성』, 1973, 겨울

2)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비평』, 1979, 봄; 엄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세계의문학』, 1977, 여름; 오생근, 『한국대중문학의 전개』, 『문학과지성』, 1977, 가을.

3) 최재봉,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작가세계』, 세계사, 2000(겨울), 68쪽.

는 여자)(『학원사』, 1985),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여성신문』, 1989.2.17~7.28) 등. 주로 1980년대 이후 소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박완서의 80년대 여성문제 소설들이 여성 개인을 주체의 자리로 부상시켰다<sup>4)</sup>는 데 의미를 둔다면, 본고의 분석 대상인 『휘청거리는 오후』(『동아일보』, 1976.1.1~12.30)와 『도시의 흥년』(『문학사상』, 1975.12~1979.7) 역시 중산층 여성의 ‘주체화 작업’<sup>5)</sup>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완서의 딸인 호원숙의 “『도시의 흥년』과 『휘청거리는 오후』가 모두 성공하고 화제를 뿌렸던 시기, 어머니가 아이들의 양육과 할머니의 치매로 노인 문제와 여성 문제에 심각하게 눈을 돌렸다”<sup>6)</sup>라는 언급에서 두 작품과 여성문제의 긴밀성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박완서의 1970년대 장편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박완서의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단초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보여준 물질주의 풍조와 가부장제에 대한 중산층 여성의 문제의식이 『도시의 흥년』에서 확장되고, 나아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함께 살펴볼 때 생산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욱이 두 소설이 창작된 시기는 유엔에서 정한 ‘세계여성의 해’(1975)를 전후하여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현실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성

4) 김양선,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 연구-1980년대 여성문제 소설 다시 읽기-』, 『한국 문학회론과 비평』 제5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3, 231쪽.

5) 라깡에 따르면, 상징적 질서 속에서 모든 주체는 필연적으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분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욕망의 주체로 다시 태어난다. 이때 ‘분리’란 자신의 욕망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외된 주체의 상태에서, 자신의 고유한 욕망과 만족을 되찾고 해방과 자유를 다시 획득하는 주체화 작업을 의미한다(김상환·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창비, 127-129쪽).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도 국가가 주도한 가부장적 근대화라는 상징적 질서에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산층 여성들이 소외의 주체에서 진정한 욕망의 주체로 탄생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6) 호원숙, 『행복한 예술가의 초상』,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53-54쪽.

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중산층 여성을 독자층으로 한 잡지 『여성』에서 보여준 여성 지도자들의 담론<sup>7)</sup> 및 보바르의 『위기의 여자』<sup>8)</sup>가 출판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된 점, 이후 창작과비평사에서 개최한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에 대한 좌담회<sup>9)</sup> 등은 당시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이 활발하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국가 주도의 가부장적 근대화와 일정 부분 간격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박완서의 소설 창작 경향, 즉 신문 기사처럼 화제가 될 만한 소재들을 서사화함으로써, 소설을 중심으로 담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sup>10)</sup>과 맞물려 소설을 통한 여성의 담론화 과정에 개입된다.

한편 오자은, 정홍섭, 황병주의 글<sup>11)</sup>은 박완서의 소설에서 중산층의 속

- 
- 7)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1964년에 창간한 『여성』은 중산층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한 월간지이다. 이 단체는 1972년도에 이르면 교육부, 국제평화친선부, 보건부, 아동복지부 이민부 등 13개의 부서와 대한간호협회, 대한YWCA, 대한여학사협회, 여성문제연구회 등 20개의 가입단체를 소유한 영향력 있는 협의회가 된다. 그런데 『여성』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담론은 한편으로 경제개발을 통한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고 여성이 국민적 주체로 표상되는 것에 동의하면서, 다른 한편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에 대한 담론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가 갖는 가부장성과는 일정 부분 간격을 유지한다.
- 8) 『위기의 여자』는 시몬느 보바르의 저서 중,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소설이자 1975년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다. 이 소설을 번역한 오증자는 금년이 ‘여성의 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바르가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여성과 그 의식을 다루고 있으며, <위기의 여자>를 통해 여성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과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강조한다(오증자, 『위기의 여자』(해설), 정우사, 1975, 247쪽).
- 9) 창작과비평사에서 『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좌담회는 백낙청을 사회자로 하고 이효재, 이창숙, 김행자, 서정미 등 당시 여성 대학교수와 기자들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론에 해당하는 ‘한국 여성의 현실’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중산층 여성의 의식화’이다. 즉 여성 지도자들은 중산층 남성과는 다른, 중산층 여성의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자각과 근로여성 및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창작과비평사, 『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 『창작과비평』14권 2호, 1979.4, 15-28쪽).
- 10)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취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77쪽.
- 11)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국어국문학』164, 국어국문학회, 2013;

물성이나 허위의식을 분석하는 기존의 반복된 논의에서 더 나아가 중산층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오자은의 글은 『휘청거리는 오후』를 대상으로 70년대가 중산층 가정되기의 욕망과 방식들이 탄생하고 혼란되는 시기이며, 중산층은 자신이 중산층 가정임을 승인받는 데 필요한 텅 빈 기표의 대타자-부르주아에 의해 상상되고 구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정홍섭의 글은 (당대 서울 사람들의) '일상의 평범함'에 관한 탐구를 통해 동시대의 삶의 문화의 본질이 경제제일주의적 근대화가 낳은 후진성과 획일화, 육체적 질병임을 밝혀냄으로써 미래의 삶의 비전을 찾아나서는 것이 박완서식 현실주의의 특질이자 지향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황병주의 글은 박완서의 1970년대 소설과 수필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위치는 상류와 하류 사이에서 상승의 희망과 추락의 공포로 불안하다는 것과 박완서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은 타락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중산층의 딜레마를 자유주의의 미덕으로 해소시켜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의 논의는 박완서 소설 속 주인공이 대부분 중산층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이 배제된 중산층의 논의에 치우친 점에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화진, 김은하, 이선미의 글<sup>12)</sup>은 초기연구에서 간과했던 중산층 여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즉 이화진의 글은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을 대상으로, 물질 가치로서의 여성의 육체와 욕망의 허구성이 근대의 파행

정홍섭, 「1970년대 서울(사람들)의 삶의 문화에 관한 극한의 성찰-박완서문(1)」, 『비평문학』39, 한국비평문학회, 2011; 황병주, 「1970년대 중산층의 소유 욕망과 불안」, 『상허학보』50, 상서학회, 2017.

12) 이화진,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과 서사전략-『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22, 반교어문학회, 2004; 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국가 근대화기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 기획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2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에 대한 진단이고, 박완서 소설이 대중성을 확보해나가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김은하의 글은 『도시의 흥년』을 대상으로,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을 상업주의가 아니라 순결주의, 과잉, 도덕화를 강제하는 가부장적 국가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고, 특히 여성을 근대화와 가부장적 국가의 허위와 억압성을 전시하고 폭로하는 인물로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선미의 글은 『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물질주의적 결혼문화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현하고, 과소비 풍조에 휩쓸리는 결혼에 대한 여성의 딜레마적 상황과 분열적 양상을 사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박완서의 초기소설은 물질 중심주의 풍조와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라는 계층적 위치에 있는 여성의 이중적인 정체성과 관련지어 분석할 때 보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논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산층’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중산층 여성의 이중적인 정체성<sup>13)</sup>에 초점을 맞추어, 물질주의적 근대와 가부장제에 대한 중산층 여성의 망탈리테<sup>14)</sup>와 여성의 사회적 현실과 욕망 사이의 길항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본고는 중산층 의식의 이중적인 특성, 즉 권위주의에 대한 암묵적 혐의 및 사회변혁성에 초점을 맞추어, 박완서의 두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의 가부장적 근대에 대한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중적인 망탈리테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산층 의식의 이중성에 관한 자료로는 김성국, 『한국사회 중산층의 실체와 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신문』1993. 5. 31/ 강희경, 『한국 자본주의 성장과 중산층 의식의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신문』1993. 5. 31 등 참조)

14) ‘망탈리테’는 한 시대의 집단적인 정신 현상 그 근처에 있는 거대한 심적구조로서 동시대인의 사고와 행동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지배한다. 그리고 망탈리테는 이데올로기·태도·사유구조·감정구조·심층적 토대로 구체화 할 수 있다(박수현, 『망탈리테의 구속 혹은 1970년대 문학의 모태』, 소명출판, 2014, 30-31쪽).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박완서 초기소설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의 망탈리테라고 할 수 있는 동시대의 이데올로기(주로 물질주의적 근대와 가부장제)에 대한 중산층 여성들의 태도와 감정구조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라깁의 소외와 분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중산층' 여성의 물질주의적 근대에 대한 순응과 저항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중산층의 존재가 경제개발을 통한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국가적 성장이나 개발 수준의 지표로서 중시된 이후, 근대적 산업사회로의 진입 속에서 본격적인 근대화의 성과가 나타나는 1970년대에 이르러 중산층이 근대화의 주체로 떠올랐다. 그리고 중산층 가정의 모델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근면의 도덕과 행복의 욕망을 요구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행복의 판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산층의 기본 요건이 소득(자산이나 주택 등), 안정된 직업, (고등)교육, 중산층에의 귀속의식 등이 모두 충족되는 '알짜 중산층'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이 시기 중산층 판타지는 소수의 중상류층을 모델로 한 모방 욕망<sup>15)</sup>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은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내세운 중산층 판타지에 대해서, 모방 욕망을 가진 중산층 여성들의 소외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분리의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중산층 판타지에 대한 모방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는 허성 씨의 아내 민 여사와 딸 딸 초희가 있다. 민 여사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딸 딸 초희의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류 사회의 결혼 풍속'을 무작정 따르고 '사기꾼의 아내가 되더라도 호강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물질주의적 욕망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초희 역시 어머니의 물질주의적 욕망을 그대로 내면화한 인물이다. 그런데 초희는 평소 결혼을 통해서 신분상승을 지향하는 물질주의적 여성이지만, 상류층 남성인 조광옥과의 첫 만남부터 심각한 소외상태를 경험한다.

결혼 생활에서 엘리베이터 속처럼 사람 그 자체만을 강렬하게 의식하는

15)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32, 한국문학연구회, 2007, 349-351쪽.

동안보다는 물질적인 생활환경을 의식하는 동안이 훨씬 더 길 테고 따라서 행복행을 결정해주는 쪽도 물질적인 생활환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sup>16)</sup>

초희는 첫 맞선남인 조광욱이 ‘건강하고, 직장 좋고, 재산 있고, 집 사났고, 초혼이고, 차남이고, 궁합까지 맞는다’라는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만나기 전부터 그 남자와 잘 살아 보일 자신감을 내비친다. 그러나 초희가 막상 그를 만났을 때, 물질적인 조건에는 만족하면서도, 그가 결혼에 대해서 남의 말만 되풀이하는 자기 목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공허함과 위기의식을 느낀다. 그렇지만 행복행을 결정해주는 것은 물질적인 환경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후 초희는 조광욱과 파혼을 하고, 돈 많은 중년남자인 공회장의 후처로 들어갔을 때도, 남편으로부터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에는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원인 모를 불행과 허무감을 느낀다.

초희는 문득 수사슴의 정액이 곧 정력이 된다고 믿고, 돈과 정력이 곧 아내의 행복이 된다고 믿는 공회장의 기막힌 단순성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싶으면서 견잡을 수 없이 불안해졌다.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초희의 불안감은 점점 더 심해진다.<sup>17)</sup>

초희는 자신과 동일하게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돈과 정력이 곧 아내의 행복이라고 믿는 공회장에 대해 만족하기는커녕 혐오감을 느낀다. 그리고 초희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하는 내부의 목소리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보석 수집과 신경안정제, 전 남자친구와의 불륜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하려 한다.

그런데 초희의 원인 모를 소외감이나 불안감, 정신적 질환 등은 ‘억압

16)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1, 42-43쪽.

17)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2, 세계사, 2012, 202쪽.



된 것의 회귀<sup>18)</sup>라고 볼 수 있다. 즉 초희가 외적으로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욕망을 억누른 결과가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소설의 서두에서 초희는 아버지를 닮은 선량한 남자를 좋아하고, 마음이 맞는 남자와 뭘 먹어도 행복한 본능을 가진 여성이지만, 이러한 본능의 충동을 억누르고 자아가 요구하는 물질주의적 행복을 선택한 결과, 불안감과 신경증 증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초희가 평소 자신의 원칙대로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파멸에 이른 것은 불륜으로 신성한 결혼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응징<sup>19)</sup>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타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외된 주체의 결과이며, 더 나아가 물질주의적 행복을 내세운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내면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중산층 여성의 물질주의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와 병증을 통해서 물질주의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과 물질주의적 행복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신경증자인 초희가 원인 모를 불안감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국가가 제시한 물질주의적 행복과 중산층 판타지로부터 분리되는 차원을 보여준다면, 『도시의 흥년』에서 수연은 물질주의적 가정의 거짓과 비열을 인식하고, 자립을 통해 국가가 제시한 물질주의적 행복과 중산층 판타지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좀더 완전한 분리의 차원을 보여준다.

『도시의 흥년』에서 물질주의와 중산층 판타지의 모방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로는 수연의 어머니와 큰딸 수희가 있지만, 작가는 화자인 수연을 통해서 중산층 여성의 이중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먼저 수연의

18) 프로이트에 따르면, 신경증 형성의 메커니즘은 체험의 결과 본능이 충족을 요구할 때, 자아가 이것에 위협을 감지하고 억압의 과정을 통해 이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본능적 충동은 그 강도를 재결합시키거나, 새로운 동기를 통해 재분출을 시도한다. 이때 정상적인 충족 방법은 '억압상환'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에 '병증'이라는 대리 만족을 통해 출구를 마련한다. 따라서 모든 병증이 형성되는 현상은 <억압된 것의 회귀>이다(프로이트, 황보석 역,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열린책들, 1997, 222-227쪽; 프로이트, 이윤기 옮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97, 415-416쪽).

19) 이화진, 앞의 논문, 304쪽.

엄마인 김복실 여사는 6.25 전쟁 때 남편 없이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모성애라는 명분으로 도둑질을 하고, 양색시 장사까지 하면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사람이 되었다. 그 후 그녀는 ‘부자 위에 또 하나의 신분인 상류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쌍둥이 남매를 명문학교에 입학시키고, 큰딸 수희를 예비검사인 서재호와 결혼시켜서 자신의 집안을 계층적으로 상승시키고자 하는 물질주의적 욕망의 표상이 되었다. 그리고 큰딸 수희 또한 어머니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한 인물로, 집안의 경제력과 미모를 수단으로 고시에 합격한 서재호와 애정 없는 결혼을 한다. 그런데 『도시의 흥년』에서 적극적으로 물질주의와 상류층을 지향하는 두 인물의 파멸, 즉 수연모가 남편의 외도로 인한 충격으로 가정이 파탄 나고, 큰딸 수희도 이혼이라는 불행을 겪는데 비해서, 물질주의적 삶에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 수연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간다는 설정은 작가가 후자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의 서술자인 수연은 한편 중산층 집안의 딸로서, 소위 ‘엄마의 물질적인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명동에서의 과소비, 호화관의 크리스마스 파티 등의 일상을 마음껏 누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물질주의와 익애(溺愛)가 넘치는 자신의 가정을, 풍요롭지만 비열과 거짓의 고장으로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서 자기만의 삶의 방법을 찾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이처럼 수연의 물질주의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는 오빠의 애인 순정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배플고 그녀는 배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배품을 받는 자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여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거였다. 그래서 엄마가 별자리도 알잡을 수 있듯이 나도 순정이를 경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돈의 여러 가지 기능 중 가장 못된 기능의 한 가지를 나는 나도 모르게 엄마를 통해 배워 가진 것이다.<sup>20)</sup>

20) 박완서, 『도시의 흥년』1, 178쪽.

나는 순정이가 가난하고, 가난한 걸로 해서 비참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순정이가 지니고 있는 특이한 무구함, 건강함, 목욕한 헛수나 입고 있는 새 옷이나 건강진단서하곤 상관없는, 그녀의 사람됨의 깊은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무구함과 건강함을 생각했고 나도 모르게 씹까지 내고 있었다. (중략) 순정이가 사는 누추한 고장의 생활에도 순정이를 무구하게, 건강하게, 뚝뚝하게 길러낸 고장다운 뭐가 있을 것이다.<sup>21)</sup>

첫 번째 제시문에서 수연은 쌍둥이 오빠 수빈이를 꿀탕 먹일 생각으로 소개시켜준 순정이가 예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주체에, 무시할 수 없는 당당함을 가진 것에 참을 수가 없어서 거액의 돈을 이용하여 순정의 생활을 망쳐놓을 구상을 한다. 이것은 자신의 엄마가 돈이라면 권력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들 수빈의 군대 배치를 위해 별 자리에게 청을 넣는 것과 같은 태도이다. 즉 수연 역시 돈으로 가난하지만 무구하고 뚝뚝한 순정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물질중심주의적 가치관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제시문에서 수연은 가난하지만 비참하지 않는 순정이의 인성에서 나오는 무구함과 건강함을 부러워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산층 여성의 서민층에 대한 관심과 서민층 여성에 대한 연대 가능성이다. 예컨대 『도시의 흥년』에서 수연은 서민층인 오빠의 애인 순정과 술집 경영자인 성미영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립과 당당함을 오히려 부러워한다. 그리고 소설 결말부에서 아버지의 첩이 등장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지게 된 파국에서, 순정은 수빈과 결혼하여 수연의 가정을 지켜내는 긍정적인 인물로 재현된다. 성미영 또한 수연이가 ‘쌍둥이 남매가 상피불었다’는 가족들의 오해로 집에서 쫓겨났을 때, 집을 제공하고 구주현이 봉사하던 야학을 함께 돕는 인물로 재현되면서 계층을 넘어선 연대의식을 보여준다.

21) 박완서, 『도시의 흥년』1, 177-178쪽.

박완서는 『도시의 흥년』을 창작한 비슷한 시기,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서민층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을 보여준다. 예컨대 『회청거리는 오후』에서 허성 씨는 자신의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소년공들의 수척하고 남루한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관심을 표명한다. 그리고 「흑과부(黑寡婦)」(『신동아』, 1977.2)에서 ‘나’ 또한, 막일로 살아가는 밀바닥 서민인 흑과부의 생동감 있는 일상과 목욕하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지닌 동등한 여인이라는 공감을 느끼며 자신의 안일한 소시민성에 충격을 가하는 계기가 된다.<sup>22)</sup> 이처럼 『회청거리는 오후』, 「흑과부」 등 초기 박완서 소설에서 중산층 인물들의 서민층에 대한 단순한 관심과 공감은 『도시의 흥년』에 오면, 서민층과의 구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수연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허위로 가득찬 중산층 가정으로부터 자립을 결심하고, 서민층 여성들의 삶에 공감과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산층을 근대화의 주체로 표방하고 물질주의적 행복을 유포했던 국가의 ‘중산층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60-70년대 중산층 논의가 주로 중산층의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박완서의 소설에서 중산층 여성의 의식은 80년대 후반 이후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이자 집단간의 갈등과 반목을 완충시켜 주는 중간집단으로서의 중산층 논의<sup>23)</sup>와

22) 당대 비평가인 백낙청은 “박완서 소설의 주요인물 대다수가 중산층인 데 비해, 『흑과부』에 등장하는 흑과부는 밀바닥 서민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소설에서 ‘나’가 가난한 이웃들과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부터 중산층의 소시민성에 충격을 가하고 반성하게 된다는 설정이 박완서의 소설에서 반복되고, 그것이 어떤 새로운 통찰을 수반하는 것”(백낙청, 앞의 논문, 352쪽)이라고 언급한다. 이를 수긍한다면, 박완서가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의 연대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박완서는 산문에서, “결국 아래위를 함께 이해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층이 바로 이 보통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박완서, 「보통으로 살자」,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세계사, 2002, 225쪽)라고 하면서, 중산층을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

23) 홍두승, 『중산층 논의의 변천』,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5-17쪽. 박완서의 두 소설에서 국가가 제시한 물질주의적 근대에 대해 중산층 남성들이

연관된다는 점에서 선구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박완서 소설에서 중산층 여성의 망탈리테를 이해하는 데, 중산층의 경제적 요소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 3. 중산층 ‘여성’의 가부장제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갈등

박완서가 『회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을 창작한 시기는 유엔에서 정한 ‘세계여성의 해’(1975)를 계기로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층이 대폭 늘어나고, 산업분야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수출 진흥을 위한 노동력을 대거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민법상에 평등한 지위와 권리가 인정되지 못한 사회적 모순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이 시기 국가가 내세운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는 여성을 국민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강조하고 여성의 모성을 중심으로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 유폐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강화하였다.<sup>24)</sup> 이에 대해서 중산층 여성들의 담론을 대변하는 잡지 『여성』(한국여성단체협의회)은 경제개발을 통한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고 여성이 국민적 주체로 표상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가 갖는 가부장성과는 일정 부분 간격을 두고 있다.<sup>25)</sup> 또한 ‘창작과비평사’에서

---

대부분 비판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중산층 여성들은 물질주의적 근대에 대해 수용과 저항 사이에서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산층 여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중산층 의식의 이중적인 특성, 즉 국가라고 하는 권위주의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사회 변혁성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4)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가을), 삼인, 1999, 90-91쪽.

25) 이은영, 『김승옥의 각색 작업에 나타난 여성 재현과 윤리 의식 연구』, 『인문논총』 제72권 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2, 171-174쪽.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중산층 여성들의 의식화 문제나 서민층과의 연대 문제 등을 통해서 여성 내부의 통합을 강조하였다.<sup>26)</sup>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 또한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에서 강화한 가부장제에 대해 암묵적 합의와 갈등이라는 양가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먼저 작가 박완서는 자신의 일화를 통해서 가부장제에 의한 관습들이 한국적인 부덕(婦德)이나 미풍양속(美風良俗)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사회의 암묵적 합의로 실행되는 동시에 갈등을 일으키는 양상에 대해 지적한다.

나는 겉보기에 한국적인 미풍양속을 가장 잘 지키면서 살아온 편이다. 그것은 이 글 처음에서 언급한 청년이 본대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지켰다기보다는 그것에 가장 심하게 짓눌리면서 가장 강한 반발을 키워 왔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길 다르고 속 다른 인격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너무도 오랜 한국적인 부덕, 미풍양속과 씨름하고 회의하고 증오하고 정들이고 살아왔기에 감히 그 신성한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해방도 좋고, 남녀의 평등도 좋고, 새로운 가족법도 좋지만, 이런 근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미풍양속을 정립함이 없이 먼 남녀칠세부동석 시대의 미풍양속을 신성불가침의 신주단지처럼 모셔놓은 채 그게 가능할까. 글썄... 나는 상상이 안 된다. 마치 족가(足枷)를 찬 자유인(自由人)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sup>27)</sup>

애독자라고 소개한 한 청년의 방문을 받은 작가는, 그로부터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여성의 본분인 한국적 부덕(婦德)을 지키며 사는 태도에 대해 찬사를 받는다. 그러나 박완서는 자신은 청년이 말하는 소위 한국적

26) 창작과비평사, 앞의 글, 15-17, 22, 28쪽.

27) 박완서, 『자유인에 대하여』,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주부생활사, 1980, 95-96쪽.

인 부덕이라는 것에 언더리를 내는 사람이며, 부덕이니 미풍양속이니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남존여비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이 미풍양속을 지켜온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강제였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여성이 ‘현모양처’로 표상되는 부덕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점과 부덕이 가부장제를 받쳐주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박완서가 한국적인 부덕에 회의하고 증오하면서도 정들이고 살아왔다는 고백은 당시 한국여성들의 사회적 현실과 욕망 사이의 길항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적인 부덕에 대한 여성의 양가적인 태도는 박완서의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허성 씨의 딸 초희는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고방식, 남편의 고정관념, 그리고 남편이 가장인 이 집안의 질서와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고 타협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들과 지긋지긋하게 마찰한다고 느낀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고방식, 남편의 고정관념, 남편의 분위기 그리고 남편이 가장인 이 집안의 질서와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며 타협하며 부드럽게 편하게 일생을 보내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들이 그녀와 지긋지긋하게 마찰한다고 느끼면서, 비명 같은 신음 같은 항의 같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하는 그녀 내부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다.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것은 그녀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조롱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녀의 행복을 난폭하게 교란하고 그녀를 불안하게 견잡을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다.<sup>28)</sup>

초희는 처음부터 철저히 실리위주의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물질적

28)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2, 203쪽.

인 만족을 위해서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에 암묵적으로 합의한다. 그러나 초희는 남편인 공회장의 교육방법과 사고, 사랑방법에 대한 가부장적인 태도에 저항감을 느낀다. 예컨대 아들 형태에 대한 공회장의 교육방법-뇌물을 써서라도 교사가 아들을 야단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아내에게 강요한 점, 결혼 후에도 집에 사별한 아내의 가구와 사진을 그대로 두고 기존 가족의 질서를 강조한 점, 초희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감행한 점 등에서 공회장의 전형적인 가부장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초희는 공회장의 이러한 가부장적인 태도에서 심한 소외감과 저항감을 느낀다.

둘째 우희 역시 부모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남편 및 시댁의 가부장제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면서도 이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데, 그것은 ‘깨진 그릇’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순결주의) 때문이다. 평소 우희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어온 당당한 여성이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남자와 몇 번 자본 것으로 ‘깨진 그릇’ 취급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희는 ‘깨진 그릇은 깨뜨린 놈한테 속하게 하는 게 수’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와, 민수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부 측에 대한 불평등한 결혼 풍습을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의 가부장성이 터춧대감처럼 견제함을 심각하게 체감한다.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걸까. 슬레이트 지붕이나 핵가족이나 사람 사는 걸모양일 뿐, 속생활을 속속들이 간섭하는 낡은 생활양식과 낡은 도덕은 아직도 터춧대감처럼 견제하지 않는가.

우희는 아랫입술을 자근자근히 깨물며 그 터춧대감과 타협할 것인가, 투쟁할 것인가, 몰아낼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sup>29)</sup>

우희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고 미술, 실내장식, 꽃꽂이 등을

29)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2, 세계사, 2012, 69쪽.



배웠지만, 결혼을 통해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될 가부장제라는 터줏대감을 다루는 방법이나 그것의 황포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지켜나갈 방법을 배운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막상 부모의 전통적인 순결주의나 민수와 시택 식구들의 여성에 대한 낡은 도덕과 관습에 부딪치자, 그것에 타협할지 투쟁할지 심한 갈등을 느끼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예컨대 우희는 신혼여행 기간에 남편인 민수가 아내와 친정 집안을 기죽이려는 태도를 취하자, 단지 긴장된 대결을 피하지는 이유로 싸움을 회피하고, 차츰 남편의 가부장성에 길들여진다. 그런데 우희가 신혼여행 때, 남편 민수와 갈등을 겪고 자신의 행복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낭만적 사랑에 기대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민수는 우희의 남편이기 이전에 얽히고설킨 크고도 촘촘한 그물의 그물코였다. 우희는 민수와 동격의 인간으로 민수와 결혼한 게 아니라 한 마리의 철없는 피라미처럼 이 크고도 촘촘한 그물에 걸려든 신세인지도 몰랐다. 우희는 정말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펄쩍펄쩍 뛰어도 시원찮은 걸 지그시 참았다. 살아가면서 차차 극복할 수 있겠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누가 뭐래도 서로 사랑하니까. 우희는 속으로 사랑을 주문처럼 외었다. 그녀가 믿을 거라곤 그것밖에 없었다.<sup>30)</sup>

우희는 결혼에 의해 보장된 것이 둘만의 행복이 아니라, 시택 식구들의 공공연한 간섭이고 그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 그리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랑하니까’를 주문처럼 외우면서, 낭만적 사랑에 기대어 막연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진다. 그러나 재클린 샬스비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성 역할의 분리에 기반하여 여성의 의무를 가정과 자녀에 한정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 가부장제 이데올

30)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2』, 81쪽.

로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sup>31)</sup> 평소 남녀평등을 당연시하던 우희 또한 신혼여행 후 매일 시댁을 오가며 시할머니 요강까지 비우는 등. 시댁에서 내세운 맏며느리로서의 과도한 의무들을 묵묵히 감당한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의 가정폭력에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라고 하면서 남편의 폭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여 시댁의 가부장제를 묵인하고 내면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회청거리는 오후』에서 주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의 가부장적인 횡포에 대해 여성이 암묵적으로 합의하면서도 갈등하는 양상을 공시적으로 보여준다면, 『도시의 흥년』에서는 가족 내의 가부장성이 공시적인 사회를 넘어, 오랜 역사를 가진 구조적인 문제임을 통시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도시의 흥년』에서 가부장제가 공시적으로 작동되는 방식은 ‘과시적 여가’(conspicuous leisure)<sup>32)</sup>를 통해서 드러난다. ‘과시적 여가’는 보통 중산층 남성들이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종복들을 통해 자신의 유한 계층적인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때 과시된 여가의 내용인 중산층 여성, 자식 등은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장식품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연의 어머니 김복실 여사가 비록 여성이지만, 6.25 전쟁 이후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자식을 도구화 하고, 남편을 상류층 구색 맞추기로 생각하는 등. 자식과 남편을 통해 부유한 중산층인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상류사회의 허위와 기품을 흉내 내는 것 또한 가부장적인 ‘과시적 여가’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남편과 자식들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가부장의 권위를 지닌 어머니의 부속물로 전락한다. 따라서 주인공 수연은 독립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시종일관 물질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으로부터 탈주를 시도한다.

다음으로 『도시의 흥년』에서 가부장제가 통시적으로 작동되는 방식은 “쌍둥이 남매는 상피 붙는다.”라는 할머니의 미신에서 드러난 남녀불평등적 태도이다. 쌍둥이 남매로 태어난 수연은 “쌍둥이 남매는 상피 붙는다.”

31) 채클린 셀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155-169쪽.

32) 창작과비평사, 앞의 글, 18쪽.

라는 속설에 대한 할머니의 강한 믿음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여섯 살까지 이모 집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입학도 1년이 미뤄지는 등 소외와 차별을 당한다. 그 후에도 할머니의 미신은 두 남매에게 강박관념으로 작용하여, 오빠 수빈은 여동생과의 불행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최초의 여자를 둔 주고 사고, 동생 수연 역시 할머니의 끔직한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형부가 될 서재호와 불륜을 저지른다. 이처럼 소설의 전반부에서 할머니의 미신에 대한 쌍둥이 남매의 태도는 일단 그 미신을 내재화 하고, 소극적으로 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설의 후반부인 3권 17장 <파국>에 등장한 대고모 할머니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계기로, 수연은 “남매 쌍둥이는 상피 붙는다.”라는 할머니의 미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나름의 삶의 방법을 개척한다. 대고모 할머니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일산에서 손이 귀한 지씨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남매 쌍둥이로 태어난 대고모 할머니는 ‘남매 쌍둥이는 상피 붙게 돼 있다.’는 것을 정한 이치로 아는 조부모의 “계집애는 얹어 죽여야 한다”라는 명령을 피해서, 친척집에 개구멍받이로 들어갔다. 그 후 남매 쌍둥이 중, 아들은 열두 살 때 다섯 살 많은 민며느리와 성례를 하고, 딸 역시 나이 많은 신랑의 후취로 시집을 갔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들은 난봉꾼이 되어 아내를 구박했고, 후취로 시집간 딸은 자식 하나 못 낳고 과부가 되어 친척 아주머니인 쌍둥이 엄마를 찾아와서 같이 지내던 중, ‘남매 쌍둥이는 상피 붙는다’는 말이 운명처럼 실현되었다. 그런데 대고모 할머니의 고백을 들은 수연이의 “남매 쌍둥이는 상피 붙는다는 말을 믿으시느냐”라는 질문에 대고모 할머니의 대답이 의미심장하다.

영감님은 기차를 타면 귀가 먹고, 전깃불을 보면 청맹과니가 된다는 걸 믿는 것처럼 남매 쌍둥이는 상피 붙고, 남매 쌍둥이를 낳은 부모는 누구나 그 자리에서 계집애를 얹어 죽인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다.<sup>33)</sup>

“그러니까 할머니는 남매 쌍둥이는 상피 붙는다는 걸 믿고 계시군요.”

“아냐. 그 반대지. 나는 내 쌍둥이 오라버니가 한 말을 믿는다. 어른들이 우리를 남매로만 키웠던들 우린 결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을 게야. 남남으로 키웠으니까. 남남끼리인 남자 여자가 저지를 수 있는 일을 우리도 저질렀을 뿐 이야. 나는 너희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sup>34)</sup>

첫 번째 제시문에서 영감님(조부)은 문명에 대한 헛소문을 맹신한 것처럼 남매쌍둥이에 대한 미신을 맹신했다. 그러나 두 번째 제시문을 보면, 대고모 할머니는 쌍둥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한 말을 인용하며, 남매 쌍둥이에 대한 속설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들이 남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남녀가 저지를 수 있는 일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려라는 대고모 할머니의 말에 따라, 수연은 아버지의 불륜사실과 자신들의 무죄를 어머니에게 알릴 결심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최기사와 어머니의 불륜이 드러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지만, 아버지의 첩과 아들의 존재를 어머니에게 알리고, 자신들이 쌍둥이 남매 저주와 관련이 없음을 밝히려는 행동은 전통 또는 미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상적 파시즘<sup>35)</sup>에 저항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작가가 “『도시의 흉년』은 지씨 가의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이런 근대적인 미신을 어떻게 갈파하고 파괴하고 자기 나름의 삶의 방법, 사랑의 방법을 찾아내는가를 보여주고자 한 이야기”<sup>36)</sup>라는 언급과 일치한다. 그리고 소설 속 젊은 세

33) 박완서, 『도시의 흉년』3, 255쪽

34) 박완서, 『도시의 흉년』3, 259-260쪽

35) ‘일상적 파시즘’은 전통이라는 이름의 문화적 타성들, 설명하기 힘든 본능과 충동들 속에 천연덕스럽게 자리 잡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전사회적 현상이다. 따라서 전통의 이름으로 혹은 민족의 이름으로, 민중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일상적 파시즘을 고사시키지 않는 한, 진정한 변혁은 불가능하다.(임지현,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당대비평』8(가을), 1999, 33-45쪽.

36) 박완서, 『작가의 말』, 『도시의 흉년』1(1977년 초판 작가 후기)

대를 억압하던 온갖 미신적인 것을 타개하고 획득한 새로운 삶의 모습은 『살아있는 날의 시작』(『동아일보』, 1979. 10. 2~1980. 5. 30) 등 박완서의 1980년대 이후 여성문제 소설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4. 행위주체로서의 여성과 진정한 행복에 대한 모색

1960-70년대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 내에서, 여성 또한 국민적 주체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근대화 프로젝트가 갖는 문화논리는 국가 민족주의와 가부장성이었다. 즉 조국 근대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적 차원에서의 산업화와 정신적 차원에서의 한국적 가치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국가 민족주의이며, 이때 ‘한국적 가치’는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성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그 토대는 가부장적 사회 구조였다. 따라서 여성은 근대화 기획에서 근대화의 생산 과정 속에 통합되었지만, 국가 민족주의와 가부장제는 사회적 행위 주체자를 국민인 남성으로 재현하여, 여성을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동적 도구로 만들거나 혹은 행위 주체자인 남성의 보조자로 만들었다.<sup>37)</sup> 그런데 박완서의 장편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서는 1970년대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성별 정치학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의 보조자로서 수동적 역할을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한 행복을 모색하는 행위주체로서의 여성<sup>38)</sup>을 재현하고 있다.

먼저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말히는 친구 미선의 남자친구였던 정훈을 가로채 사귀면서, 정훈의 폭군처럼 오만한 횡포를 오히려 남성성으로 여

37) 김은실, 앞의 논문, 89-91쪽.

38) 아마티아 센에 따르면, 여성의 소득 능력, 가정 밖에서의 경제적 역할, 문자해독 능력과 교육, 소유권 같은 다양한 변수들은 여성의 독립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여성이 행위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 이때 여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변혁을 일으킬 능동적 주체로 간주된다(아마티아 센,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2013, 282-284쪽).

기며 굴종한다. 예컨대 말희는 평소 정훈이가 다방에서 흙탕물이 된 구두를 닦으라고 명령하거나, 정훈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깎두기 국물이 묻은 자신의 와이셔츠를 입으로 빨아 얼룩을 지우라는 명령에도 굴욕감 없이 순순히 따랐다. 그런데 말희가 이런 굴욕적인 일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정훈이가 용모와 성품을 다 갖춘 미션을 버리고 자기에게로 온 것이 사랑 때문이라 믿었고, 그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남아 중의 남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희는 친구 미선의 소박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결혼식에 참석한 후, 정훈과의 사랑방식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나는 그들이 우리 시대의 격식이나 풍속을 전혀 무시하고 제멋대로 초라했는데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행복해 보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하고”(중략)

“그런 아마 그들의 사람됨과 그들의 사랑에 속임수가 없이 진실했고, 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내가 주장한다면 자긴 나를 비웃겠지.”<sup>39)</sup>

말희는 친구 미선의 결혼식이 당시 결혼풍속을 무시한 초라한 것이었지만,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허세가 없는 순수함과 진실함, 그리고 자유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말희는 정훈이의 사랑방식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폭군처럼 군림하는 불평등한 관계에서 나온 것임을 인식한다. 그런데 폭군처럼 오만하고 가부장적인 정훈이의 태도가 변하게 된 계기가 말희의 진로문제와 관련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말희는 약학대학 출신의 잠정적인 전문직 여성으로서, 졸업 후 제약회사나 약국에 취직을 할 것인가, 약국을 자영할 것인가 하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정훈에게 편지로 상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말희는 잠깐 비쳤을 뿐인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정훈이가 지나

39)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2, 118쪽.

친 관심을 표명한 데서 혐오감을 느낀다. 그리고 말희는 정훈이가 미션이와 이별한 이유 또한 미션이네의 파산이라는 경제적 문제임을 직관적으로 깨닫는다. 결국 말희는 정훈의 사랑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고, 정훈의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가부장적인 폭력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와 헤어지고, 순수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경하와 사귈다. 따라서 말희가 정훈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경하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고시공부를 하라는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서 같은 연대의식을 느낀 두 사람의 사랑방식은 공감과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관계<sup>40)</sup>라고 할 수 있다.

지난밤 청년과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손을 마주 잡고 서로가 각각 당면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빌리고 격려를 주고받은 것 같다. 말희는 청년의 꾸밈없는 태도가 호감을 지나 소중해졌다. (...) 말희는 청년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으리라 생각했다.<sup>41)</sup>

이처럼 정훈의 오만한 남성성에 굴종하던 말희가 남자친구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감정과 친밀성에 기대어 경하와 사귀고, 잠정적인 약사로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은 자신의 고유한 욕망을 되찾는 진정한 욕망의 주체이자 행위주체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말희의 언니 우희가 여성의 사회적 현실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는 것과 대비된다.

40) 기든스는 ‘생활정치’라고 하는 쟁점에서 감정의 영역, 친밀성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회·심리적인 변동을 추적함으로써 현대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기든스의 친밀성의 영역에서 인간관계는 관습이나 전통과 같은 관계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관계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따라 유지·변화되는 ‘순수한 관계’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는 공적 영역과 대비되는, 친밀성의 영역-곧 사적 영역-에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혁명의 담당자로 여성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에 로티시즘』, 새물결, 1996, 15-17쪽)

41)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2』, 175쪽.

같은 대학 졸업생이면서도 여자에게 뚫린 취직의 문은 바늘구멍보다 더 답답했다. 비록 2차 대학 영문과였지만 들어갈 땐 꽤 어렵게 들어갔는데도 나와보니 사회에선 별 볼일 없는 공부를 한 것같이 대해주는 것 같았다. (...) 이런 우회에 비해 졸업식도 치르기 전에 미리 꽤 유망한 무역회사에 취직이 된 민수는 하루하루 때를 벗기 시작하더니 이제 제법 말끔한 청년 신사가 됐다.<sup>42)</sup>

우회는 졸업 후 자신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데 비해서, 같은 대학교 학생인 민수는 졸업도 하기 전에 번듯한 무역회사에 취직한 것을 보고 열등감을 느낀다. 그리고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은 우회가 민수와 시택의 가부장제에 길들여지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1960년대 중반에 이미 ‘여학생 홍수’<sup>43)</sup>라는 말을 쓸 정도로, 여성의 교육비율은 해마다 늘어났지만, 1970년대 사회적 환경은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의 틀 안에서 여성이 사회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가 열악했다. 예컨대 1970년대 여성 취업자들의 교육정도별 분포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낮아서, 중산층 이상의 여성이 가정으로 귀속되고, 이는 가부장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sup>44)</sup>

『도시의 흥년』에서 명문대 가정학과 출신인 수연 역시 졸업 후 취직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으면서, 자립하여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다. 예컨대 평소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균등한 기회를 주장해온 여권운동가인 지도교수가 “부잣집 따님이 좋은 데 시집이나 가지 취직은 뭐 하느냐”, “가정대란 현대적인 현모양처를 기르기 위한 곳이다.”라고 한 말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 일반의 태도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연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컨대 수연은 지도교수의 추천으

42) 박완서, 『회청거리는 오후』1, 136-137쪽.

43) 민숙현 기자, 『여학생 80년사』-여학생 홍수, 『여원』, 여원사, 1965.11, 153쪽.

44) 김옥렬, 『여성 기능의 생산화』, 『여성』, 1977.9, 18쪽 참조.



로 임시교사로 간 여학교의 교문이나 건물 중앙, 교무실까지 ‘현모양처’라는 글씨가 붙어 있는 것에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더욱이 고3 여학생들은 진학지도와 같은 비중으로 ‘현모양처’를 강조한다는 주임교사의 말에, 어렵게 구한 임시교사직을 박차고 나온다. 그리고 중산층 여성인 수연이는 가난한 집 딸 순정과 술집 경영자 석미영을 자신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며, 자립이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열등감을 느낀다. 이때 순정의 간호사로서의 직업과 석미영의 술집 경영자로서의 직업은 모두 여성이 가정 밖에서의 경제적 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소득 또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수연에게 있어서 자립은 물질적인 독립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방식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찾는 분리의 과정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수연은 자립을 기준으로 자기 주변의 여성들을 실패한 여성과 성공한 여성으로 나눈다.

나는 그 무참한 쾌락의 흔적 위에 할머니와 대고모할머니와 엄마와 절름발이 여자와 이모와 수희 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떠올렸다. 그것은 하나같이 여자의 삶의 뜻을 오직 여자가 남자에게 줄 수 있는 쾌락에 걸었다가 거기 실패한 여자들의 얼굴이었다.<sup>45)</sup>

수연에게 할머니, 대고모할머니, 엄마, 절름발이 여자, 이모, 수희 언니 등은 하나같이 실패한 여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여자의 삶의 의미를 오직 남자에게 뚝으로써, 남자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유한 욕망을 발견하지 못한 소외된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순정과 석미영 같은 자립한 여성들은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들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화자인 수연 역시 ‘타의에 의해

45) 박완서, 『도시의 흥년』3, 370쪽.

길들여진 자신을 변경시켜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찾아 새롭게 시작'하려는 독립된 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연은 구주현을 사랑하면서도 혹시 자신이 구주현이란 남자에게 매여 자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과 불안한 마음에서 그로부터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구주현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농사일에서 화해와 자유, 행복을 느꼈다는 말에 수연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자신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결혼식을 계기로 가족들과 화해할 것을 다짐한다. 따라서 마지막 장면에서 수연이가 삶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을 반복하는 모습은 여성의 자기희생으로 복귀하는 모습이거나 농촌 공동체의 전통적인 가족질서로의 귀환<sup>46)</sup>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구주현과 수연의 고향으로의 회귀라는 결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주현이 아버지의 장례식 후, 아버지가 남긴 땅을 통해 처자식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와의 진정한 화해와 소통을 한 것처럼, 수연이 구주현과 결혼을 결심한 것은 가족구성원을 소외시키는 가족이 아닌, 화해와 소통의 가족을 재구성하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려는 하나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5. 결론

박완서의 초기소설은 주로 '물질중심주의 풍조와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박완서의 장편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 나타난 중산층 여성이 물질주의적 근대와 가부장제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이지 않고 순응과 저항 사이, 암묵적 합의와 갈등 사이에서 균열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박완서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인 중산층 여성의 '중산층'이면서

46) 이경호, 『속물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허물에 대한 자의식』, 『도시의 흥년』3(작품해설), 세계사, 2012.

동시에 ‘여성’인 이중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1960-70년대 중산층 논의가 주로 중산층의 경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박완서의 소설에서 ‘중산층’ 여성의 의식은 80년대 후반 이후 중산층 의식의 이중적인 특성, 즉 권위주의에 대한 암묵적 합의 및 사회변혁 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집단 간의 갈등과 반목을 완충시켜 주는 사회통합에서의 중산층의 역할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박완서 소설에서 중산층 ‘여성’은 국가가 주도한 가부장적 근대화라는 상징적 질서를 따르지만, 그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분리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욕망을 되찾는 주체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에서 중산층 여성은 전통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일상적 과시즘에서 탈출하여 스스로 자립하고, 진정한 행복을 모색하는 행위주체라는 점에서 사회 변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자료

- 박완서, 『도시의 흥년 1~3』, 세계사, 2012.  
 \_\_\_\_\_, 『휘청거리는 오후 1~2』, 세계사, 20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1973-1977.

### 2. 단행본

- 김상환·홍준기 엮음, 『라깡의 재탄생』, 창비, 127-129쪽  
 김옥렬, 『여성 기능의 생산화』, 『여성』, 1977. 9, 16-19쪽.  
 박수현, 『망탈리테의 구속 혹은 1970년대 문학의 모태』, 소명출판, 2014,  
 30-31쪽

- 박완서, 「보통으로 살자」,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세계사, 2002, 225쪽
- 창작과비평사, 「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 『창작과비평』 14권 2호, 1979, 4, 15-28쪽
- 최재봉,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 『작가세계』, 세계사, 2000(겨울), 68쪽
- 호원숙, 「행복한 예술가의 초상」,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53-54쪽.
- 메리 울스틴크래프트, 문수현 역, 『여성의 권리 옹호』, 책세상, 2011.
- 시몬느 보봐르, 오중자 역, 『위기의 여자』(해설), 정우사, 1975, 247쪽
- 아마티아 센, 김원기 역,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2013, 282-284쪽.
-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15-17쪽.
- 재크린 살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155-169쪽.
- 프로이트, 이윤기 역,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97, 415-416쪽
- \_\_\_\_\_, 황보석 역, 『억압, 증후, 그리고 불안』, 열린책들, 1997, 222-227쪽

### 3. 논문

-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의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339-373쪽.
-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가을), 삼인, 1999, 79-100쪽.
- 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국가 근대화기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 기획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2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299-330쪽.
- 김주연, 「순응과 탈출」, 『문학과지성』, 1973(가을), 838-846쪽.
- 민숙현 기자, 「여학생 80년사」-여학생 홍수, 『여원』, 여원사, 1965. 11, 153쪽.
- 박완서, 「자유인에 대하여」, 『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경』, 주부생활사, 1980, 87-96쪽.
- 배경열,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에 나타난 현실비판의식」, 『한국사상과문화』 62,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120-141쪽.

- 백낙청, 『사회비평 이상의 것』, 『창작과비평』, 1979(봄), 346-352쪽.
- 송은영, 『가족부의의 해부에서 해체로』,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2』(작품해설), 세계사, 2012, 356-372쪽.
- 신건, 『1960~19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1, 1-97쪽.
-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세계의문학』, 1977(여름), 207-214쪽.
- 오생근, 『한국대중문학의 전개』, 『문학과지성』, 1977(가을), 805-817쪽.
-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11, 231-256쪽.
- 이경호, 『속물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허물에 대한 자의식』, 박완서, 『도시의 흥년』3(작품해설), 세계사, 2012, 376-387쪽.
-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71-612쪽.
- 이은영, 『김승옥의 각색 작업에 나타난 여성 재현과 윤리 의식 연구』, 『인문논총』 제72권 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165-198쪽.
- 이형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서울대 석사논문, 2004, 231-256쪽.
- 이화진, 『박완서 소설의 대중성과 서사전략-『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2, 반교어문학회, 2004, 288-311쪽.
- 임지현,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당대비평』 8호, 1999(가을), 288-311쪽, 33-45쪽.
- 정홍섭, 『1970년대 서울(사람들)의 삶의 문화에 관한 극한의 성찰-박완서문(1)』, 『비평문학』 제39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401-435쪽.
- 황병주, 『1970년대 중산층의 소유 욕망과 불안』, 『상허학보』 50, 상허학회, 2017, 85-144쪽.

## Abstract

### A Study on Middle Class Women's Mentalites in Park Wan-Seo's Novels in 1970s

: Focusing on *The Groggy Afternoon* and *A Lean Year of City*

Lee, Eun-young

Park Wan-Seo's early novels have been estimated affirmatively in an aspect of criticism on a material centralism trend and middle class's falsehood consciousness. However, this thesis found that middle class women in her two novels, *The Groggy Afternoon* and *A Lean Year of City* are not just critical but show cracked stance between adaptation and resistance, unspoken agreement and conflict to materialistic modern times and patriarchy.

This point shows the biggest trait in Park Wan-Seo's novels, double identity, 'middle class' and 'woman'. In other words, the middle class women in her novels have a meaning that they follow the symbolic order, patriarchal modernization directed by the state. But they also have a signification they experience isolation in the course and they show the subjectivization process, regaining their own desire through the separation course. Especially in *The Groggy Afternoon* and *A Lean Year of City*, the middle class women show a possibility of social reform in that they are action subjects who are seeking authentic happiness, escaping from daily-life fascism and being independent without any help.

Key words : middle class women, mentalites, adaption and resistance, unspoken

agreement and conflict, separation, woman as an action subject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  
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